

越劇 《春香傳》의 서사적 변모양상*

이 지 은**

<목 차>

1. 서론
2. 작품의 서사적 변모양상
 - 2.1 廣寒樓
 - 2.2 百年佳約, 愛歌·別歌
 - 2.3. 一心
 - 2.4. 農夫歌
 - 2.5. 夜禱, 獄中歌
 - 2.6. 賦詩
3. 결론

1. 서론

《春香傳》은 삶과 사랑의 모습을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표현하여 고전의 자리를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용자의 손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변모해 왔다. 중국에서는 1954년 莊志(1920~)¹⁾에 의해 越劇 《춘향전》²⁾으로 변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17740).

** 慶北大 中文科 講師(yang-guifei2daum.net)

1) 원명은 曹永福이며, 일명 鄭永福이다. 上海 출신으로, 中國戲劇家協會와 上海作家協會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작품으로 《祥林嫂》, 《關漢卿》 등이 있다.

2) 북한 국립고전예술극장 연출극본을 중국어로 개편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아직 극본을 접할 수 없다. 작품의 번역은 북한 外務省의 安孝相이 맡았고, 華東戲曲研究院 편집부에서 개편하였다.

안되었다.³⁾ 선학의 연구 중에 월극 《춘향전》에 대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李古本, 宋萬甲本, 경관35장본, 완판29장본, 완판33장본, 완판84장본 등 한국의 다양한 《춘향전》 판본과의 비교를 통해 월극 《춘향전》의 변모양상과 그 의미를 살피고자 함이다.

《춘향전》의 주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판본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과 정절의 추구, 신분 갈등과 해소, 관민 갈등과 타파 등으로 축약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는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작품의 서사적 맥락 속에서 제대로 규명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제 요소를 중심으로 서사적 변모양상을 살펴보고, 한국 판본과의 비교를 통해 그 특징과 의미를 찾는 데 목적을 둔다.

작품은 총 6막으로⁵⁾, 제1막 <廣寒樓>, 제2막 제1절 <百年佳約>, 제2절 <愛歌·別歌>, 제3막 <一心>, 제4막 <農夫歌>, 제5막 제1절 <夜禱>, 제2절 <獄中歌>, 제6막 <賦詩>로 이루어져있다.

2. 서사적 변모양상

2.1 廣寒樓

李夢龍과 春香의 첫 만남에 관한 대목이다. 때는 端午節, 장소는 廣寒樓로, 머리에 창포를 꽂은 소녀들이 烏鵲橋에 등장하면, 춘향과 香丹이 모습을 드러

3) 월극 《춘향전》은 다른 地方戲에도 영향을 주어, 粵劇, 京劇, 潮劇, 黃梅戲, 豫劇, 評劇, 晉劇, 秦腔, 山東梆子, 龍濱戲 등 각종 劇種으로 개편되었다.

4)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양희석의 <중국 월극에서의 춘향전 수용>, 윤진현의 <중국 월극에서의 춘향전 수용> 등이 있다.

5) 북한 국립고전예술극장 연출극본은 한국에서 출판되지 않았지만, 박태원과 조운의 북한 창극 《춘향전》(1955)은 6장이라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이 작품과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극 《춘향전》을 비롯하여 중국의 《춘향전》 희곡은 이러한 6막 혹은 6장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낸다. 소녀들은 광한루에 오르기도 하고, 오작교를 건너가 그녀를 타기도 하다가, 저 멀리 다가오는 李夢龍을 발견하고 이야기꽃을 피운다.

소녀들 : 그 박학다재한 이몽룡, 이공자님이 아닌가요?

향 단 : (신이 나서 춘향에게 가서 아뢰기를) 사또의 자제 이몽룡 도련님이 오셨어요.

[춘향은 곧장 다리를 건너 가버린다. 향단도 마지못해 따라간다.]⁶⁾

(p.119)

못 소녀와 향단이 일제히 이몽룡에게 관심을 보일 때, 춘향은 자리를 피해버린다. 많은 이본에서처럼 능숙하게 남성을 유혹하는 기생의 모습이 아니라, 조신하고 수줍음 많은 규수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한루에 당도한 이몽룡은 아름다운 풍광을 찬탄하며 시를 읊는다. 그의 언행은 점잖은 양반의 모습이 녹아있고, 시에는 감수성이 드러난다. 이때 房子는 이몽룡에게 “도련님은 평소 문밖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온종일 서재에서 책을 읽으시잖습니까. 오늘 단오절을 맞이하여 모처럼 봄놀이를 나왔으니, 좀 놀다가 늦게 들어간들 사또께서 나무라지 않으실 겁니다.”⁷⁾라며 봄놀이를 종용한다. 방자의 말은 평소 이몽룡의 삶의 태도를 반영하는데, 방자의 눈에 비친 이몽룡의 형상은 학문에 힘쓰는 점잖은 서생의 모습이다.

술상이 나오자 이몽룡은 방자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한다.

이몽룡 : (방자가 한쪽에 시립해있는 것을 보고) 방자야, 와서 앉지 않고 뭇 하나냐?

방 자 : 양반 면전에 천민의 자리가 어디 있겠나이까?

이몽룡 : 양반, 천민 모두 부모님이 나아 기르신 것이거늘, 무슨 상하를 나눌 것이며, 무슨 차이가 존재하겠느냐?⁸⁾ (p.121)

6) 衆小女：莫非就是那個博學多才的李夢龍，李公子。香丹：(興忡忡地去告訴春香)使道公子李夢龍來了。〔春香逕自走過橋去，香丹只能隨着而去。〕

7) 房子：公子平日不常出門，整天坐在書房裏唸書，今日是端陽節日，難得出外遊春，即使玩得遲點回去，諒使道也不會責怪。

8) 李夢龍：(見房子侍立一旁)房子，你怎麼不來坐下？房子：兩班面前，哪有賤民的座位。李夢

이몽룡은 방자와 동석할 뿐만 아니라 방자에게 친히 술을 부어주고 있다. 그의 모습에는 따뜻한 인간미와 함께 신분평등을 추구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작품이 신분차별을 지양하고 근대적 평등 의식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두 잔 술에 취기가 올라 먼 곳을 바라보는 이몽룡의 눈에 그네를 타는 춘향의 모습이 들어오자, 방자는 춘향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방 자 : 도련님, 춘향 아씨는 백설 같은 피부에 꽃 같은 얼굴, 絶世佳人이지요. 게다가 뱃속 가득 글재주요, 글에도 능하고, 노래도 잘하니, 우리 남편에서 女中君子임을 그 누군들 모르겠습니까.⁹⁾ (p.122)

춘향의 묘사에서 부각되는 것은 뛰어난 미모뿐만이 아니라, 글재주와 품성이다. 이몽룡은 방자에게 춘향을 불러올 것을 부탁하면서, “내가 그녀의 才名을 흠모해서 불러오라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느니라.”라는 말을 덧붙인다. 이몽룡은 춘향이 미모가 빼어난 기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재주와 덕성을 흠모하기 때문에 만남을 원하는 것이다. 미모와 문학적 재능에 이끌려 만남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愛情 傳奇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방자가 춘향을 불러오기 위해 오작교에 다가간 순간, 향단 역시 춘향을 쉬게 할 요량으로 광한루에 도착한다. 이런 설정을 통해 여러 판본에서 보이는 방자가 춘향을 부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두 사람의 실랑이와 흥정은 매우 간소화되고, 춘향은 고아한 형상을 유지하게 된다. 방자가 이몽룡이 만남을 원한다는 전갈을 전하자, 춘향이 보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춘 향 : 이몽룡이라! (자기도 모르게 누각 위의 이몽룡을 한번 쳐다보고 자리를 떠나려다, 방자에게 가로막혀) (중략) 남녀칠세부동석이란 말도 모르느냐. 도련님과 男女有別하니 그 명 따르지 못하겠구나.¹⁰⁾

龍 : 兩班、賤民, 同是父母生養, 分什麼上下, 有什麼兩樣?

9) 房子 : 公子, 春香是雪膚花容, 絕色佳人……而且是滿腹文才, 能賦善歌, 誰不知道她是我們南原的女中君子.

춘향이 남녀칠세부동식을 이유로 이몽룡의 청을 거절하고 자리를 뜨려는 찰라, 이몽룡이 나타나 누각에 올라와 시 한 수 지어주기를 정중히 부탁한다. 춘향은 부족한 글재주를 핑계로 부탁을 고사한 후, “나비는 꽃송이 위로 날아갈 수 있지만, 꽃이 어찌 나비 따라 춤추리오!”라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난다. 이몽룡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방자에게 달이 뜨면 청사초롱을 들고 글방 앞에 대령할 것을 명한다. 청사초롱은 혼례식에 사용하는 초롱으로, 이몽룡이 혼례에 임하는 정중한 태도로 춘향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암시하고 있다.

이상의 장면에서 완판29장본, 완판33장본 등의 판본에 보이는 신분차이에서 비롯된 불평등성이나 문제는 발견할 수 없다. 중국어에 원래 존재어가 존재하지 않기도 하거니와, 이몽룡의 서슴없는 반말과 춘향의 공손한 높임말의 대비 역시 느껴지지 않는다. 이몽룡은 양반으로서 기녀의 딸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춘향 역시 기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몽룡과의 대면을 피하고 그의 초청에 선뜻 응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 변모가 추구하는 것은 이몽룡과 춘향을 才子佳人 서사문학에 등장하는 才子와 佳인의 형상으로 형상화한 점이다. 이몽룡은 학문에 정진하는 점잖은 청년으로, 춘향은 才貌를 겸비한 정숙한 女中君子로 그려진다. 그리하여 이몽룡과 춘향의 만남은 양반자제와 규수의 만남으로서 설정되었다. 이러한 설정에서 출발하여 이고본¹¹⁾에 나타난 이몽룡 부친의 희화화¹²⁾와 같은 골계적 요소, 여러 이본에서 보이는 춘향과 이몽룡의 화려하고 과도한 행장치레¹³⁾는 자연스레 삭제되었다. 이러한 개작은 작품의 현실성을 떨어트리는 요소를 지양하고, 순수한 사랑과 현실성을 추구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10) 春香：李夢龍！……（不自覺地向樓上李夢龍看了一眼，欲走，又被房子攔住）（中略）常言七歲男女不同席，與公子男女有嫌，恕不從命。

11) 이명선 소장 고사본, 1940년에 《문장》에 공개하였다.

12) 이고본에서 이몽룡의 아버지는 비속어를 합부로 사용하는 경망스럽고 세속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13) 만화본 등 몇 종의 이본을 제외하고, 춘향의 복식과 치장 및 이몽룡의 행장치레는 여러 이본에 걸쳐 두루 나타난다. 이 대목이 크게 확장된 이본에는 나귀 안장치레, 도령의 신수와 복색치레, 방자의 복색치레에 걸쳐 거창하게 묘사된다.

2.2 百年佳約, 愛歌·別歌

2.2.1 百年佳約

이몽룡과 춘향의 결연과 첫날밤을 다룬 대목이다. 제1막과 같은 날 밤, 춘향 집을 배경으로 한다. 춘향 집 앞에 청사초롱을 든 방자와 이몽룡이 등장한다.

이몽룡 : (심신이 불안한 듯, 당황하는 모습으로 들어온다. 사방을 둘러보고는, 더욱 두려워한다.) 방자야, 우리가 오늘밤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너무 의람되어, 체통이 없는 것 같구나.¹⁴⁾ (p.124)

제1막과 마찬가지로 이몽룡의 태도에는 여성을 유혹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노련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주저하기를 계속하는 이몽룡은 급기야 방자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재촉하고, 방자는 이몽룡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독려한다. 이 때 집안에서 나는 소리에 두 사람은 화단 뒤로 급히 몸을 숨긴다. 향단이 대문을 닫으러 다가가자, 화단 뒤에 숨었던 방자가 나타난다. 방자가 이몽룡이 왔노라 이실직고 하자, 춘향은 집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몽룡은 月梅에게 정중하게 예를 올리고, 월매는 춘향더러 밖으로 나와 인사를 하게한다. 춘향은 몸을 굽혀 이몽룡에게 절을 한 후 등을 돌린 채 앉고, 이몽룡도 아무 말도 못한 채 쉽게 입을 떼지 못한다. 월매가 이몽룡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를 권하자, 이몽룡은 그제야 용기를 내어 백년가약을 맺으러 왔노라 고백한다. 월매가 자신의 과거사¹⁵⁾를 핑계로 혼인을 허락하지 않자, 이몽룡은 평생 춘향만을 사랑하겠노라 다짐한다. 이몽룡의 진심을 확인한 월매는 六禮를 올릴 것을 제안하고, 이몽룡은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아뢰 수 없으니 직접 婚書를 써서 육례를 대신하여 자신의

14) 李夢龍 : (心神不定, 慌張地進來, 四顧, 更覺惶恐) 房子, 我們今夜這樣進來, 只怕太冒昧了, 似乎有失體統吧.

15) 월매는 成判書의 수청을 든 후 춘향을 낳게 되는데, 그 후 성판서가 승인하여 한양으로 떠난 후 병사하자 성씨 집안에서 천민신분을 빌미로 춘향을 양반의 족보에 올려주지 않는다.

마음을 표하겠노라 다짐한다. 주저하는 월매에게 방자는 “마님, 男兒一言重千金이니, 육례 따위가 무슨 소용 있사옵니까?”라며 설득한다. 작품이 추구하는 반봉건의 관념이 구체화되는 장면이다. 월매가 춘향의 의향을 물어보자, 춘향은 아무 말 없이 부끄러워하고, 월매는 빨리 말해줄 것을 종용한다. 이때 방자는 “마님, 참으로 여자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고개를 숙이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좋다’는 뜻 아니겠습니까.”라며 중재에 나선다. 이몽룡이 “하늘처럼 땅처럼 영원하고, 바닷물이 마르고 돌이 썩어도 변치 않으리니, 천지신명께서 이 맹세를 증명해주소서.(天長地久, 海枯石爛, 天地神明, 公證此盟.)”의 친필혼서를 적어 올리자, 월매는 그제야 기뻐하며 향단에게 술상을 가져오게 하고, 방자는 기뻐하며 축하한다. 이몽룡은 먼저 월매에게 절을 올리고, 첫 술잔을 바친다. 월매도 이몽룡에게 한 잔을 바친 후, 춘향에게 좋은 날이니 合歡酒를 마시라고 권하고 퇴장한다. 작품은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며 술을 바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막이 내린다.

두 사람의 혼인 장면에는 기존의 판본에 나타난 신분의 불평등성이나 이에 서 비롯된 비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다. 여러 판본에서 보이는 이몽룡과 춘향의 만남은 양반자제와 기녀의 딸이라는 신분차이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두 사람의 혼인은 합리적인 인정을 얻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텍스트에서 춘향은 단아한 佳人이자 女中君子로 형상화되었기에, 양반 자제와 혼인을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또한 두 사람의 첫날밤 장면도 다른 판본에서와 같이 질탕하거나 관능적이지 않고 우아하게 변모되었다. 춘향이 기생으로 설정된 완판29장본의 경우, 언약을 맺겠다는 이몽룡의 제안에 춘향은 선뜻 자기의 집을 가르쳐준다. 춘향은 이몽룡을 환대하고, 술자리가 펼쳐지고, 첫날밤의 뜨거운 사랑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이러한 진행은 불순하고 음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에서 두 사람 사이를 채우는 것은 관능이 아니라 어색함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월매의 인정과 방자의 도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개편의도에서 말미암아 이몽룡과 춘향이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初

夜辭說 대목은 삭제되었다. 더불어 이고본과 송만갑본에 보이는 이몽룡의 배알이¹⁶⁾와 같은 골계미 가득한 장면도 자연스레 삭제되었다. 또한 酒肴器皿 사설¹⁷⁾ 역시 대폭적으로 삭제되어 현실성을 더하고 있다.

2.2.2 愛歌・別歌

제2막 제2장 <愛歌・別歌>은 ‘사랑과’와 ‘이별가’ 대목에 해당한다. 제1장 으로부터 석 달이 지난 가을날 밤, 이몽룡은 춘향을 찾아와 사랑을 속삭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이때 방자가 와서 부친이 승인하여 漢陽으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한양으로 데려가겠다는 이몽룡의 말에 춘향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이몽룡이 집으로 돌아간 후, 춘향은 월매와 짐을 챙기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이몽룡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침통함이 가득하다.

이몽룡 : (침통하게) 춘향아, 부모님 면전에서 너와 나의 혼사에 대해 아뢰었던 니, 이 말을 들은 부친께서 노발대발하시더구나. 만약 모친 애걸 아니었으면 나를 사당에서 내쫓고 족보에서 제명하려 하시더구나! 영원히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도록 말이다.....

춘향 : 어찌 그리하시는지요?

이몽룡 : 부친 말씀하시길, 양반자제 아직 미성년일제 타향에서 먼저 소첩을 얻으면.....

춘향 : 소첩이라니요! 이 춘향이 소첩이라니요!¹⁸⁾ (p.131)

이몽룡은 부친이 두 사람의 결연을 반대한다는 소식을 알리고, 춘향은 좌절한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불길한 예감을 감지한 월매가 들어오면서 상황은

16) 초야에 월매는 딸 사랑을 하려고 밤을 새며 자리를 뜨지 않는다. 이몽룡은 이런 월매를 내보내기 위해 배알이를 하는 척 한다. 이고본과 송만갑본에 나타나는 장면으로 골계미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

17) 초야에 춘향모가 이도령에게 대접하려고 성대한 주안상을 차려놓는 대목이다. 만화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본에 존재한다.

18) 李夢龍 : (沈痛地) 春香, 我在父母面前, 提起你我婚事, 誰知父親聽了, 大發雷霆, 若非母親懇求, 便要將我趕出祠堂, 家譜除名, 永遠不能科舉應考…… 春香 : 這是爲了什麼? 李夢龍 : 父親言道, 兩班子弟, 尚未成年, 在外鄉先有小妾…… 春香 : 小妾! 我春香是小妾!

처절해진다. 월매는 억울한 마음에 이몽룡에게 “양반이라는 두 글자 꺼내지도 말게. 양반이라는 핑계로 사람을 속이려 하다니.”라고 질책하고, 춘향에게 “춘향아! 어서 죽어라, 시체라도 이 양반이 데려가게!”라고 울부짖는다. 이몽룡은 월매를 달래며, 춘향을 데려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神主를 모시는 가마에 몰래 춘향을 태우고, 신주를 품안에 감추고 가겠다는 것이다. 월매는 “참으로 좋은 생각이다.”며 한탄하고, 춘향은 자신에게 닥친 생이별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어머니,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일단 이별할 수밖에 없지요. 도령님을 힘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며 모친을 진정시킨다. 춘향은 이몽룡에게 앞날의 영광을 축원하며, 자신이 끼던 玉指環을 이몽룡에게 주며 당부를 남긴다.

춘향 : 이것은 춘향의 손에 끼던 옥지환으로, 낭군님께 드리오니 몸에 잘 지고 계셔주소서. 춘향의 마음은 이 指環처럼 끝이 없으니, 낭군님만 영원히 기다리겠나이다.¹⁹⁾ (p.137)

춘향은 기약 없는 기다림을 감내하기로 결심하고, 이몽룡은 꼭 돌아오겠노라는 다짐을 남긴 채 길을 떠난다. 춘향이 건네는 옥지환은 중국 고전 愛情戲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信物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사적 흐름에서 두 사람의 사랑에는 새로운 의미가 발현되고 있다. 영원하리라 생각했던 두 사람의 사랑이 부친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하지만 부친의 반대는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순수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별의 순간에도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의 격조는 유지된다. 첫날밤의 사랑의 정경이 음란하지 않았듯, 이별의 모습 또한 애뜻하다. 두 사람의 격조 있는 사랑과 이별의 정경은 이후 작품의 후반부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간직한 춘향이 수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텍스트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변모는 작품의 서사적 전개에 합리성과 일관성을 부여하고 있다. 많은 판본에서 춘향이 작품의 전반부에는 기생으로서의 질탕하고 파격적인 사랑을 보여주

19) 春香 : 這是春香手上玉指環, 交與郎君隨身帶, 春香是情如指環無窮盡, 始終不渝待郎君.

다가 후반부에 접어들어 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서사적 모순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작품의 전반부에서 두 사람의 형상에 변모를 가하여 후반부의 형상과 일치시킴으로써 이러한 모순을 최소화하고 합리성을 추구하였다.

기존의 판본의 '이별가' 대목에는 이별을 고하는 이몽룡에게 발악하는 춘향의 모습이 절절하게 드러나 있다. 완판84장본의 경우, 이별의 계기로 두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욕망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몽룡은 자신의 前途를 위해 춘향을 멀리하고, 춘향은 신분상승을 꾀하려던 꿈에 물거품이 될 것을 느끼고 화를 낸다. 두 사람의 이러한 행동은 텍스트에서는 자연스럽게 삭제되었다. 이몽룡은 춘향에게 돌아오겠노라 약속하고, 춘향은 이몽룡의 평안을 빌며 이몽룡이 꼭 돌아올 것이라며 월매를 위로한다.

2.3 一心

이 대목은 기존 판본의 기생점고 장면에 해당한다. 배경은 삼년 후 여름, 南原 使道府의 凌寒閣²⁰⁾이다. 신관 사또 卜學道가 부임하면서 작품은 또 다시 轉機를 맞는다. 막이 오르면 戶長이 기생명부 花名冊을 손에 들고 기생을 부르르고, 변학도는 기생들을 물리고 있다. 변학도는 춘향을 찾아 수청들일 요량으로 기생점고를 하다가, 기생명부에 춘향의 이름이 없는 것을 알고, 단도직입적으로 춘향을 불러오라 명한다. 戶長이 춘향은 藝妓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자, 변학도는 “예기의 딸이 예기가 아니고 무엇이나?”며 반박한다. 戶長은 춘향이 “수절한지 삼년 제로, 전임 사또 자제 이몽룡과 혼인을 맺은 사이”라 설명하지

20) 凌寒閣은 使道府의 명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다른 이본에는 찾아볼 수 없다. 제6막 <賦詩>의 공간적 배경으로 다시 등장한다. 凌寒의 전고는 王安石의 시 <梅花>에 보인다. “牆角數枝梅，凌寒獨自開。遙知不是雪，爲有暗香來。(담 모퉁이 매화나무 몇 줄기, 추위를 이기고 홀로 피어 있네. 멀리서 봐도 눈송이 아닌 것은, 그윽하게 풍겨오는 향기가 있기 때문이네.)”

만. 변학도는 그녀의 이름을 강제로 기생명부에 올려 잡아오게 한다. 衙役이 춘향이 병이 나서 못 온다는 소식을 전하자, 호통을 친다.

변학도 : 흥, 비천한 계집이 감히 명을 어기려하다니.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어서 명을 내려 사람들을 많이 보내 춘향을 잡아와 명령을 기다리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六房의 관리들을 몽땅 심문하겠다.²¹⁾ (p.140)

변학도의 말에는 권위주의와 포악함이 드러나고 있다. 사또의 치리와 인격은 지방관원뿐만 아니라 백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의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及暻이 춘향을 이끌고 나타나자, 변학도는 춘향의 용모를 흠족해하며 나이가 몇인지 물어보고 가까이 와서 앉을 것을 명하지만, 춘향은 묵묵부답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

변학도 : 춘향아, 한양에서 들자하니, 네가 전임 사또 자제와 혼인을 맺었다 하더구나. 도령이 떠난 후로 필시 네게 다른 짝이 생겼을 터이니, 양반이냐? 떠돌이냐?"

춘향 : 사또께서는 말씀 잠잠게 하시오.

변학도 : 하하, 부끄러워할 것 없다. 이실직고하렸다.²²⁾ (p.140)

변학도는 춘향의 혼인관계와 정절을 부정하며 수작을 부린다. 춘향이 사또를 질책하고 수절을 이유로 수청을 거절하자, 변학도는 “이몽룡이 진심 없이 너를 가지고 놀았거늘, 너는 왜 독수공방을 하느냐?”며 조소한다. 춘향은 이몽룡과 맺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뜻을 밝히지만, 변학도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노라며 재차 수청을 명한다. 춘향이 다시 거절하자, 변학도는 춘향의 신분을 빌미로 재삼 수청을 명한다. 천한 기녀의 딸에게는 인격과 결정권이 없다는 태도이다. 그의 태도는 신분차별이라는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21) 卞學道 : 哼, 下賤女子, 竟敢違下來. (突然想起什麼似地) 快分付下去, 多派些人去, 立即把春香帶來待命, 不然六廳頭目一律問罪.

22) 卞學道 : 春香, 本府在漢陽, 聽說你和前任使道公子結下姻緣, 如今公子走後, 想必你另有情郎, 還是兩班? 還是游子? 春香 : 請使道講話尊重. 卞學道 : 哈哈, 不用怕羞. 從實向本府說來.

이런 방법이 전혀 먹히지 않자, 변학도는 “설마 刑杖 아래 남은 인생을 끝내고 싶으냐?”며 생명을 위협하기에 이른다. 이에 춘향은 단호한 태도로 맞선다.

춘향 : 자고로 사람이 한번 나면 그 누가 죽음을 면할 수 있으리오. 만약 나더러 치욕을 참고 목숨을 탐하라 하겠다면 천부당만부당이오. 만약 어느 날 변방의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사또계선 설마 목숨이 아까워 죽음을 두려워하시겠소?²³⁾ (p.141)

춘향은 절개를 버리고 성적 노리개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노라 선언한다. 춘향의 말에는 자유와 신분해방에 대한 간절함이 녹아있다. 춘향은 변학도에게 “만약 어느 날 변방의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사또계선 설마 목숨이 아까워 죽음을 두려워하시겠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는 다른 이본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춘향의 형상에 忠節이라는 의미요소를 더해주고 있다. 여기서 춘향이 지적하는 외적이 상징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춘향의 입장에서 외적은 자신과 이몽룡의 사랑을 훼방하는 변학도를 상징하고, 1950년대 중반의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서 외적은 동맹을 위협하는 외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월극 《춘향전》은 북한과 중국의 문화외교의 과정에서 태어난 산물이며, 상호의 동맹을 기념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 하에 제작되었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의 관계가 곧 북한과 중국의 우호의 관계를 상징하며, 외적은 이러한 우호관계를 파괴하려는 국가의 상징인 것이다.

춘향의 질문은 변학도의 허를 찌르고, 대노한 변학도는 춘향을 처단할 요량으로 형방서리를 불러 죄상을 적게 하고, 춘향에게 서명을 하게 한다. 춘향은 서명 대신 ‘一心’이라는 두 글자를 남긴다.²⁴⁾ 이 장면 역시 이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목으로, 북한과 중국이 한 마음으로 동맹을 지키자는 염원이 담겨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23) 春香：自古人生誰無死，你要我忍辱貪生萬不能。若是那一旦邊疆賊寇來，聽聞使道，你難道也爲了貪生怕死？

24) 다른 판본의 경우, 춘향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고 “평생에 일편단심이요.”하며 항변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대노한 변학도는 춘향의 목에 칼을 씌우고, 執杖司수를 시켜 춘향을 매질하여 두 다리를 분지르게 한다. 한 사람을 一心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춘향의 소망은 처참하게 짓밟힌다. 그녀의 소망을 짓밟은 것은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관권이며, 신분차별에 뿌리를 둔 봉건적 관념이다. 춘향의 요구가 관권과 관념에 의해 짓밟히는 장면에서 모순이 드러난다. 이 모순이 바로 사랑과 인간성을 억압하는 기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이후 저항의 의지로 연결된다. 이렇게 작품은 변학도라는 하나의 관리에 대한 저항의 차원을 넘어서, 반봉건적 의식과 외세의 침략에 대한 대항으로 확대된다.

절개를 지킨 춘향에게 돌아온 것은 형장이다. 춘향의 몸에 형장이 떨어지면, 춘향의 고통은 핏빛 노래가 되어 울려 퍼진다. 이 노래는 <十杖歌>²⁵⁾로 알려져 있는 대목이다. 월극 텍스트에서는 이를 축약하여 2杖의 분량으로 밀도 있게 전개하고 있다.

텍스트에서는 춘향과 군노사령의 수작²⁶⁾이 삭제되어 있다. 춘향의 세속적인 행동이 이상적인 춘향의 형상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생략되는 것이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변학도에 대한 동정²⁷⁾ 역시 삭제되었다. 변학도가 악인으로 묘사될수록 춘향의 정절이 부각되고 이몽룡의 출두가 값진 것이 되기 때문이다.

2.4 農夫歌

기존 판본의 ‘농부가’에 해당하는 대목이다. 배경은 삼 개월 후, 全羅道 입구의 大路이다. 이몽룡이 작은 붓짐을 메고 지팡이를 짚고 등장하는데, 걸인 행

25) <십장가>는 만화본, 경관16장본에는 없지만 다른 이본에는 두루 존재하는 《춘향전》의 핵심적인 대목이다. 완관84장본 등에서는 매우 긴 편폭에 걸쳐 묘사되고 있다.

26) 군노사령이 춘향을 잡으러 오자 춘향이 갖은 교태를 부리며 술과 돈을 주며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으로, 이고본에는 이 장면이 잘 드러나 있다. 춘향은 술을 대접하고 돈으로 흥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7) 완관84장본은 변학도에 학정에 대해 관대한 양상을 보인다. 변학도가 춘향에게 형벌을 내린 이유는 춘향이 점점 포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며, 벌을 내린 변학도의 마음도 좋지 않은 것으로 표현하여 변학도에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색이지만 사실 暗行御史가 되어 한양을 떠나 전라도에 당도한 것이다. 이몽룡은 書吏와 中房에게 다음과 같이 명한다.

이몽룡 : 두 사람은 각기 역졸을 이끌고 좌우 두 길로 分發하여 조사하라. 만약 貪官汚吏, 土豪 및 劣紳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하나 조사하여 밝혀내고,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하라.²⁸⁾ (p.144)

다른 판본에서와는 달리 이몽룡은 조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탐관오리와 토호와 악질지주이다. 완판84장본에서 이몽룡이 서리와 중방에게 조사 지역만을 열거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의 시대가 처벌하고자 했던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관리들이 떠나자 이몽룡은 숨겨왔던 속내를 털어놓는다.

이몽룡 : 이별할 적 맺었던 金玉의 약속, 뼈와 심장에 새기며 오래오래 그리워하였네. 장원급제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날개 꽃고 네 곁으로 날아갈 수 없구나. 이는 탐관오리가 천하에 가득하여,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없어 고충이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가는 길 민정을 살피기 위함이니. 너와 내가 만날 날 며칠만 미뤄두노라.²⁹⁾ (p.144)

이몽룡이 자신의 속내를 밝히는 이 대목 역시 경판16장본, 완판84장본에는 없는 내용이다. 여기서 이몽룡의 형상이 확실히 드러난다. 그는 여전히 춘향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백성의 처지를 먼저 헤아리고 있다. 그가 사랑에 있어 무책임한 인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의식 있는 관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첫 만남에서의 이몽룡의 순수한 마음, 첫날밤 다짐했던 굳은 맹세, 떠나기 전 춘향에게 한 약속, 이별에서 보인 진실한 슬픔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8) 李夢龍 : 你們兩人各帶驛卒, 分左右兩路查訪, 如有貪官汚吏, 土豪劣紳, 務要一一查明, 據實呈報.

29) 李夢龍 : 臨別叮嚀金玉言, 刻骨銘心長想念. 如今高中占鼈頭, 恨不能插翅飛到你身邊. 只因貪官汚吏滿天下, 民不聊生苦難言, 爲此沿途察訪民間情, 你我相會之期只能緩幾天.

이몽룡은 짐짓 잠을 자는 체 하며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농부의 노래에 귀를 기울인다. 농부들이 농사의 수고를 잊기 위해 노동요를 부르고 잠시 쉬는 사이, 말발굽 소리와 종소리가 멀리서 다가오는데, 이는 曲城郡守가 변학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비단 백 필을 신고 가는 행렬이다.

이 장면에서 이본에서 등장하지 않는 朴三伯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농부 乙이 그를 '朴三哥'³⁰⁾라고 부르는 것에서, 향렬 세 번째의 농민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는 남원 백성들의 기부금을 모아 춘향을 기념하는 동상을 제작하는 중이다. 이몽룡이 이 사안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자, 박삼백은 고을의 아이들이 부르는 민요를 들려준다. 내용은 “여중군자 춘향이 삼년을 수절하다 매질을 당하지만 끝내 수청을 들지 않아 삼일 내 형장으로 끌려간다.”는 내용이다. 이 대목에서 백성의 민심이 확연히 드러난다. 一心 사건이 일반 농부들과 심지어 고을의 아이들에게까지 널리 퍼져 총체적 관심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춘향이 藝妓의 딸이라는 이유로 수청을 들라는 요구를 받고, 죽음을 각오하고 맞서다가 고초를 겪은 이상, 일반 농부들이라도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정적인 순간에 직면한다. 곧 변학도의 생일잔치가 벌어지며, 이 잔치에서 변학도가 춘향을 처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그날을 곧 춘향의 絶命日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농부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몽룡은 걸음을 재촉한다. 때마침 방자가 나타나 이몽룡에게 춘향의 서신을 전달하고, 이몽룡은 방자를 雲峰守備에게 보내고, 자신은 남원으로 길을 떠난다.

기존의 이본과 비교해볼 때, 박삼가라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변학도의 학정과 춘향의 정절에 대한 백성들의 동정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완판84장본에서는 변학도의 학정은 크게 대두되지 않고, 농민들은 풍작을 기뻐하며 태평하게 자신의 일에 만족할 뿐이다. 춘향이 당한 학정은 농부들의 삶에 큰 영향을

30) 이 이름은 조선족의 대표적인 이름이기도 하다. 누루하치의 큰아들의 토지 대장에는 朴씨 성을 가진 농노들이 朴一, 朴二, 朴三으로 등록되어 있다. 후에 그의 후손들은 자기 가족의 족보를 만들어서 그대로 적었다.

미치지 못한 것이다. 백성들에게 춘향은 단순한 경애의 대상일 뿐이다. 어사가 되어 돌아온 이몽룡이 해야 할 일은 탐관오리를 숙청함으로써 백성의 원성을 다스리고 민심을 보살피는 일이 아니라, 단순히 정절을 지키고 기다려온 춘향을 옥에서 꺼내 예전의 인연을 잇는 일이다.

그러나 텍스트에서는 농부들과 백성의 반응이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사람들은 춘향이 하옥된 사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그 추이를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춘향이 받은 학대가 변학도가 저지른 수탈과 횡포를 상징하며, 백성들의 원망을 표출시키는 도화선의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2.5 夜禱, 獄中歌

2.5.1 夜禱

다음날 밤, 춘향 집을 배경으로 한다. 월매는 향로를 앞에 두고 “하늘이시어, 부디 한양 이몽룡을 보우하사, 全羅御使가 되어 곧 죽을 우리 딸을 구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몽룡의 등장엔 월매는 크게 기뻐하지만, 걸인이 되어 돌아온 모습을 보고 그만 주저앉고 만다. 그의 행색에서 어린 딸의 가여운 운명을 예견한 것이다. 월매는 “아이고! 내 딸은 이제 희망이 없구나!” 외치며 香案을 엎어버린다.

이몽룡 : 장모님께서 쏟아지는 눈물로 옷을 적시니, 내가 가서 설명해드려야겠다.
 아아, 잠깐! (노래한다) 나는 지금 남원을 암행하러 온 몸, 만약 이 소식이 새어나가면 大事를 망치고 말테지.³¹⁾ (p.151)

www.kci.go.kr

31) 李夢龍 : 見岳母老淚縱橫濕衣衫, 待我上前去說明白, 啊呀且慢! (唱) 我此次私行察訪南原來, 怕只怕走漏風聲把大事壞.

이몽룡은 실망에 빠진 월매를 위로하고 싶지만, 大事를 위해 자신의 신분을 잠시 숨기기로 마음먹는다. 이몽룡 형상은 초반부에 보이는 수줍은 젊은이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백성을 구제하는 대사를 위해 개인적인 소원을 접어들 수 있는 훌륭한 관리의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2.5.2 獄中歌

이본의 '옥중가' 장면에 해당한다. 배경은 감옥으로, 춘향은 옥중에서 칼을 찬 채 이몽룡이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다. 춘향의 모습에 감동한 옥졸이 춘향을 위로하고 있을 때, 월매와 향단이 이몽룡과 함께 찾아온다. 춘향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도 월매의 옥체를 걱정한다. 월매는 “밥 빌어먹으러 온 공자가 왔다.”며 춘향에게 이몽룡의 도착을 알리고, 춘향은 기쁜 마음에 이몽룡을 마주한다. 그러나 춘향의 앞에 면목 없이 서있는 이몽룡은 거지 행색이다. 그 모습을 본 춘향의 절망감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터이지만, 춘향은 그 상황에서도 이몽룡을 걱정한다.

춘 향 : 어머니, 그리 말씀 마음소서. 낭군님 不遠千里하고 남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맹세의 말 잊지 않고 절 찾아왔으니, 그 사랑의 마음이 바다와 같지 않습니까. 蛟龍은 결국 연못을 벗어날 것이며, 明珠가 잠시 흙 속에 묻힌 격이오니, 어머니, 이 사람 의복이 남부하다 역겨워 마시고, 보석함의 장신구 팔아 낭군님 새 옷과 모자 같이입혀주시고, 부디 푸대접 하지 마시옵소서.³²⁾ (p.154)

춘향의 모습은 큰 감동을 전한다. 이몽룡이 돌아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한줄기 희망의 끈마저 사라졌지만, 오히려 남은 사람을 걱정하며 위로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한양으로 떠나던 이몽룡을 위로하던 모습과 그 궤적을 같이

32) 春香：母親你莫要如此說，郎君是不遠千里南原來，他不忘誓言探望我，一片情意沈如海。蛟龍終非池中物，他只是明珠暫在土內埋。母親呀，你看他衣衫襤褸難見人，將女兒箱內首飾去變賣，與郎君換上新衣帽，千萬不能將他來虧待。

한다. 춘향이 보여주는 모습은 고귀한 사랑이자 숭고한 인간애이다. 이러한 춘향의 모습은 변학도에 대한 저항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전달한다.

이몽룡은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주는 춘향의 모습에 크게 감동하여, 춘향을 구해주겠노라 말하고 싶지만, 곁에 옥졸이 있는 까닭에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 춘향은 이몽룡에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유언을 남긴다. 자신의 시신이 들판에 덩굴지 않게 깨끗한 땅을 찾아 이몽룡의 옷으로 잘 덮고, 언약의 징표로 받았던 明鏡을 자신의 품에 놓아달라는 내용이다.

춘향 : 묘지 앞에 묘비 세워 '守節冤死春香墓'라 써주소서. 나는 죽어도 狗官에게 핏값³³⁾을 받을 것입니다.³⁴⁾ (p.155)

춘향의 유언에는 자신의 사랑을 가로막고 사랑의 전제조건인 생명을 앗아간 변학도에 대한 강렬한 원한이 담겨있다. 이몽룡은 춘향을 위로하며 부디 나쁜 생각을 갖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내일 다시 오겠노라 약속한다. 춘향 역시 이몽룡을 위로하며 “낭군님, 안심하소서. 춘향은 오늘 밤을 잘 보내고, 내일 낭군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인사한다. 춘향은 죽음이 두려워 별벌 떠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라, 강인함과 의연함을 지닌 여인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전반부에서 보인 미모와 문재가 뛰어난 가인의 형상 위에, 강인하고 의연한 형상의 근대적인 여성상이 덧입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본과 비교해 볼 때, 옥중에서 기절한 후 皇陵墓에 가서 舜 임금의 二妃인 娥黃, 女英을 만나 열녀 행위에 대한 칭찬을 받는 대목이 삭제되어 있다. 대부분의 이본에 존재하는 대목이지만 구성상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위해 삭제되어 있다. 이밖에도 완판⁸⁴장본에 보이는 장남점쟁이가 춘향을 찾아와 상처를 돌보는 척하며 몸을 만지며 수작을 부리는 장면도 삭제되었다. 비극성과 현실성

33) 원문은 血債으로 피맺힌 원수, 인민을 죽인 죄과를 뜻한다. 북한에서 적과의 싸움에서 입은 희생에 대한 복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인다.

34) 春香 : 在墓前立墳碑, 上寫着<守節冤死春香墓>, 我死後也要向狗官討血債.

을 살리는 의도에서 끝계미를 최대한 줄인 결과이다.

2.6 賦詩

암행어사 출도 대목에 해당하며, 제목은 변학도의 생일에 시를 지은 사건을 의미한다. 시간적 배경은 제5막의 다음 날이며, 공간적 배경은 제3막과 동일한 凌寒閣이다. 凌寒閣이 대단원의 배경으로 설정된 것에서, 이 장소와 명칭이 작품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凌寒閣의 寒은 곧 恨과 限이다. 작게는 춘향의 원한이며, 크게는 백성의 환난이며, 더 크게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냉각시키는 외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凌寒閣이라는 명칭은 이 지점에서 寒과 恨, 그리고 限이 모두 녹아내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자 변학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각 고을 수령과 藝妓들이 운집하고, 호화로운 술상이 차려지고 방탕한 주연이 시작된다. 이몽룡이 이런 흥겨운 분위기를 깨고 “술 한 잔 얻어먹으러 왔소.” 소리치자, 운봉수비는 이몽룡의 남다른 기백과 말투를 통해 비범한 사람임을 눈치 챈다. 변학도가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시를 짓게 하고, 운으로 膏와 高자를 제시하자, 이몽룡은 시 한 수를 써서 운봉수비의 손에 남긴 채 자리를 떠난다.

金樽美酒千人血,
玉搬佳肴萬成膏。
燭淚落時民淚落,
歌聲高處怨聲高。

금동이의 좋은 술은 천인의 피요,
옥반위의 맛난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눈물 떨어지며,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또한 높다. (p.158)

불길한 예감을 느낀 운봉수비는 먼저 줄행랑을 치고, 나머지 관리들도 따라 나서려다가 변학도의 위세가 무서워 다시 자리에 앉고 만다. 시를 보고 화가 난 변학도는 사내를 잡아오게 하고, 춘향을 처형할 심산으로 불러오게 한다.

그러나 이때 “암행어사 출도요.” 소리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이몽룡이 등장하면, 관리들은 일제히 벌벌 떨며 엎드려 절을 올린다.

변학도의 학정은 일개 백성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사또라는 권력자의 악행은 더 높은 권력자인 어사의 힘으로만 응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응징은 어사의 일방적인 힘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지지와 염원이 뒷받침된 것이다. 여기서 수많은 《춘향전》 이본이 만들어지고 향유되던 19세기의 역사적 상황을 상기하게 된다. 당시는 봉건세력의 횡포에 대한 저항으로 민란이 자주 발생하던 시기였다. 민란은 생활고에서 기인하였고, 그 기저에는 탐관오리의 횡포가 존재했다. 그렇다면 당시 중국과 북한의 시각에서, 1953년 정전협정 이후의 한반도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시기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작품 속의 춘향이 원하는 것, ‘농부가’를 부른 민심이 원하는 것, 또한 작품의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막강한 권력이 나타나 탐관오리를 숙청하고, 민심을 수습하여 민생을 돌보는 것이다. 당시의 이 작품을 준비하는 중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이 나서서 탐관오리에 해당하는 외적을 물리치고, 춘향과 백성에 해당하는 북한을 돌보는 것이 바로 그들의 바람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메시지인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한반도와 중국의 현대사에 있어서 1950년대는 변화가 극심했던 시기였다.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1953년의 정전협정과 대약진운동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북한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류를 이어갔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조인되자, 中國人民支援軍은 북한의 전후 재건에 기술과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1953년 11월 23일 체결된 ‘中朝 經濟 및 文化合作協定’은 이를 정리화되었으며, 교류의 영역은 경제, 문화, 교육, 신문과 언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

었다. 이 협정은 文化合作執行計劃의 형태로 매년 계획되고 집행되었다. 이 협정의 성과로 《紅樓夢》과 《심청전》 등 대표적 고전 문학을 각색하여 상대국에서 공연하는 등 친선교류를 이어갔다.³⁵⁾ 월극 《춘향전》은 바로 이러한 외교적 차원에서 제작된 친선교류의 중요한 산물이다.

《춘향전》의 변모양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나친 선정성과 골계미를 억제하고 월극 고유의 고아함을 추구하였다. 이몽룡 부친의 비속한 언행, 주인공의 초야사설, 이몽룡의 배앓이, 춘향과 군노사령의 수작, 장님 점쟁이의 수작 장면 등을 삭제하고, 재자와 가인의 순수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전개하였다.

둘째, 기존의 판본에 존재하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배제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을 추구하였다. 춘향과 이몽룡의 등장장면에 부연되는 과도한 행장치레, 초야에 갑자기 차려지는 거창한 주안상, 춘향의 신화화, 옥중 춘향의 꿈 대목 등을 삭제하고 현실성과 합리성을 추구하였다.

셋째, 신분차별과 관민차별의 봉건적인 요소를 비판하고 근대적 인간해방을 지향하였다. 이것은 廣寒樓 장면의 첫 만남, 一心 장면, 어사와 춘향의 상봉 장면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재자가인의 재현이다. 춘향은 남자를 유혹하는데 능숙한 기녀가 아니라, 이몽룡의 등장에 부끄러워 몸을 숨기는 순진한 규수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온갖 담배를 구비해놓고 불을 붙여 피우며 이몽룡에게 권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몽룡이 한양으로 떠난다는 말에 가슴을 탕탕 치고 땅을 구르며 발악하지 않고, 그의 안녕을 축원하며 그를 믿고 기다릴 뿐이다. 자신을 구해줄 희망이었던 이몽룡이 걸인의 모습으로 찾아와도, 자신의 장신구를 팔아 이몽룡의 의관을 갈아입히려는 숭고한 인간애의 소유자이다. 작품이 진행되면서 춘향은 자신의 사랑과 인격을 짓밟고 악행을 저지르는 변학도를 호통 치기도 하고, 죽음

35) 더불어 북한의 언어학자 최열이 북경대학 東語學科 조선어 전공 교수로 초빙되기도 하였다. 楊昭全, 當代中朝中韓關係史(吉林文史出版社, 2013), p. 411.

을 앞에 두고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는 강단을 지닌 인물로 변모해나간다. 이 몽룡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고서도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순진한 청년이자, 글공부에 매진하는 서생으로, 춘향이 기생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노련한 남자가 아니다. 첫날밤 춘향자랑에 자리를 뜨지 않는 월매를 내보내기 위해 배앓이를 하며 죽겠다고 소리치는 능글맞은 인간은 더욱 아니다. 춘향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백성을 지키고 대사를 완수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훌륭한 관리의 형상을 보여준다. 작품은 이 두 주인공의 형상을 통해 완벽한 재자가인회로 거듭난다.

앞으로 다른 地方戲 《춘향전》과의 연구비교를 통해 월극 《춘향전》의 고유한 특징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바이며, 이것을 앞으로 연구 방향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 參考文獻 >

- 莊志, 《春香傳》, 華東地方戲曲叢刊(4), 1955.
 구자균 역주, 완판84장본 <烈女春香守節歌>, 《春香傳》, 민중서관, 1970.
 김진영, 김현주 역주, 《명창 장자백 창본 춘향가》, 박이정, 1996.
 강한영 교주, 《신재효 판소리사설집》, 민중서관, 1971.
 성기수·성상혁, 《완판84장 완서계서포본 춘향전》, 글솜대, 2013.
 성현경, 《이고본 춘향전》, 열림원, 2005.
 이석래 역주, 《춘향전》, 범우, 2009.
 전영진, 《춘향전》, 홍신문화사, 1995.
 강한영, 《판소리》, 신아출판사, 1988.
 김병국 외,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영출판사, 1993.
 신동훈, 《서사 문학과 현실 그리고 꿈》, 소명출판, 2009.
 정하영, 《춘향전의 탐구》, 집문당, 2005.
 한국공연문화학회, 《춘향예술의 양식적 분화와 세계성》, 박이정, 2004.
 楊昭全, 《當代中朝中韓關係史》, 吉林文史出版社, 2013.

< Abstract >

The Transformation of Yueju *Chunxiangzhuan*

Yi, Jieun

Chunhuangjeon expressed life and love in a lively and moving way. It has been transformed into various forms by numerous versions. In China, it was converted into yueju(越劇) *Chunxiangzhuan* in 1954. The purpose to deal with this issue is in order to examine the transformation by comparing it with other editions. *Chunhuangjeon* conveys a number of semantic elements, and what appears in common can be condensed into the pursuit of love and chastity, identity conflict and resolution, and government-civilian conflict and resolution. These semantics are so closely intertwined that it is impossible to define a particular scene separately, and can be properly identified in the narrative context of the work. Looking at the changing patterns of these semantics is an important indicator of the value of the edi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at the transformation patterns of these semantics, to reveal what the orientation of these transformations is, and to deduce the causes of the transformation.

Key words: Chunhyangjeon, Chunxiangzhuan, yueju, yue opera, cultural diplomac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 4. 30	2019. 5. 10	2019. 5. 23	2019. 5. 26	2019. 6. 30

